

성탄절 후 두 번째 / 신년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OF CHRISTMAS

주후 2020년 1월 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양 Praise	248 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313 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찬양팀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영어 설교 English Sermon		Will Purushotham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히브리어 (Hebrews) 12:14-17	조희연 집사
찬 양 Anthem	“감사함으로 받으면”	찬양대
설 교 Sermon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 (Live in Peace And Be Holy)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찬 송 Hymn	283 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새 227) 1,2 절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다같이
*찬 송 Hymn	283 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새 227) 4,5 절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오라” (고민영 집사, 금종각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61 장 “주의 주실 화평”(새 32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만 했고,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 형식만을 따르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는 욕망을 이루는 수단처럼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회개 없는 믿음과 열매 없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며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2:6-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한글개역 **히12:14**)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all men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NIV **Hebrews 12:1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5 (주일)	1/6 (월)	1/7 (화)	1/8 (수)	1/9 (목)	1/10 (금)	1/11 (토)
	창5	창6	창7	창8	창9,10	창11	창12
본문	마5	마6	마7	마8	마9	마10	마11
	스5	스6	스7	스8	스9	스10	느11
	행5	행6	행7	행8	행9	행10	행11

수/요/찬/양/집/회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8 오후7:30)	“너희는 계수하라” (민1:1-4, 47-54)
토요 새벽기도회 (1/11 오전6:30)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한 말씀” (벧전2:1-8)

지난 주일(12/29) 말씀

“주께서 구원하시리니”(딤후 4:9-22)

오늘 본문(딤후4:9-22)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와 사역에 있어서, 마주쳤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생명처럼) 귀하여 여긴 소중한 동역자들(디모데, 누가, 마가 요한)도 있었고, 사도 바울과 처음에는 함께 했지만, 중도에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데마)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매번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적했던 사람(알렉산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대적자들에게서 받았던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에게 큰 실망을 주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 알렉산더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히 대적했던 대적자도 분명 있었지만, 이들보다는,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메시지(딤후4:17-18)를 전해주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강건케 하시며, 주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며, 주님께서 그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그를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그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께서 구원하시며, 주께서 강건케하시며, 주께서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